

# 1930년대 전반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와 한국문학사 —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배 상 미\*

## 요 약

이 논문은 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한 1930년대 전반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대상으로, 젠더의 시각에서 한국문학사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여성 노동자들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다양한 사회적 규범들을 전유하고 때로는 그것들에 저항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젠더를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분석해보면 젠더에 따라 가족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여성의 계급갈등은 성폭력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전자는 『고향』을 통해 봉건적 가족 관계에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남성 지식인과, 공장 노동을 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는 여성 노동자들의 대비로 나타난다. 후자는 『인간문제』를 통해 관념적으로 계급과 계급갈등을 이해하는 남성 지식인 및 남성 노동자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면서 계급이 노동현장 및 생활세계 모두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라도 계급투쟁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체감하는 여성 노동자의 대비로 나타난다. 이 두 소설은 노동자들 사이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모순이 중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젠더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문학사에서 가지는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론이 될 만하다.

주제어: 젠더, 한국문학사, 고향, 인간문제, 여성 노동자, 가족, 성폭력

목차

1. 들어가며
2.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가족관계와 젠더
3.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노동현장과 젠더
4. 한국문학사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

##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1930년대 전반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사의 젠더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학에 재현된 여성 노동자에 집중하여 젠더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주제 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겠다. 이 작업이 식민지시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여성 노동자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나아가 문학 속의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사를 재구성하는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해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주요 정전인 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검토해보겠다.

한국문학사를 젠더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작업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모두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sup>1)</sup> 이 작업은 주

1) '여성문학사'를 서술하려는 시도들은 논의의 초반부부터 기존의 문학사 서술을

로 ‘여성문학사’를 구성한다는 명분하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때의 ‘여성문학사’라 함은 여성 작가의 작품과 그것의 가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학사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여성문학사’를 ‘여성’ 작가의 작품에 한정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문학에서 ‘젠더’를 고려한 연구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sup>2)</sup> 이러한 연구 경향은 작가의 생물학적 성(섹스)과 작가의 텍스트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성(젠더)을 동일시하는 방법론을 넘어서서, 상대적인 시각으로 작가의 작품의 젠더를 연구하는 장을 열었다. 젠더 연구방법론을 주장한 연구들 중에서 특히 소영현은 ‘여성문학사’ 서술이 근대와 민족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탈근대의 흐름과 함께 대두했으나, 그것이 단일한 ‘여성’을 전제한 정체성의 정치에 입각해있다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 경향이 ‘젠더/섹슈얼리티 연구’로 전환한 현재의 상황을 언

문제 삼으면서 ‘여성문학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여성문학사’를 통일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주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은 문학사 안에 포함시키는 시도와 여성 작가들의 작품적 성취를 문학사적 성과로 평가할만한 인식론에 입각한 문학사적 서술을 ‘여성문학사’를 위한 밑바탕으로 보았다. 이 연구들은 이러한 시도가 단지 기존의 문학사의 방법론과 인식론을 인정하고 그 안에 여성 작가들의 작품만을 추가하고 이들의 의의를 평가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문학사 안에 여성작가와 그 작가들의 문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학사가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기숙, 『탈경계를 위한 도전: ‘고전-여성-문학-사’를 매개하는 ‘젠더 비평’의 학술사적 궤적과 방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학술사적 의의와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2012, 5-44면; 김양선, 『여성의 관점에서 본 근·현대문학사의 (재)구성』, 『새 민족문학사 강좌』 2, 창비, 2009, 495-512면; 박무영, 『『한국문학통사』와 “한국여성문학사-여성문학사를 위하여-”, 『고전문학연구』 28, 2005, 79-118면;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상경, 『한국 여성문학론의 역사와 이론』,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임금복, 『한국현대문학사에 나타난 여성문학의 위상과 그 극복』, 『국제어문』 10, 1989, 71-94면)

- 2) 이영아,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 『인문과학연구논총』 37(4), 2016, 13-48면; 박무영, 『21세기 한국한문학사 서술의 여러 문제 -여성문학사의 입장에서-』, 『한국한문학연구』 64, 2016, 187-214면; 소영현, 『문학사의 젠더』, 『민족문학사연구』 56, 2014, 77-105면.

급한다.<sup>3)</sup> 그간의 ‘여성문학사’ 연구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도 이 연구들의 성취를 인정하는 소영현의 연구는 2010년대의 ‘여성문학사’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과는 달리 ‘여성’ 대신 ‘젠더’를 택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최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서 ‘젠더 문학사’를 표방한 연구가 제출되고 있으므로, ‘여성문학사’의 이름하에 논의되어온 유산들을 계승할 방식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젠더’를 고려한 문학사가 ‘여성문학사’의 논의들을 계승하면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문학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인가? 장성규는 문학사의 ‘독자’ 범주와 문학사에 포섭되는 ‘장르’ 범주에 문제제기하며 문학사에서 정전에 속하지 않았던 텍스트들의 가치를 재발굴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sup>4)</sup> 이 연구방법론은 그간 ‘여성문학사’의 이름으로 수행된 연구들과 유사하다. 이 방법 외에, 정전으로 인정된 텍스트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정전’으로서 가지는 위상을 다른 측면에서 찾아보는 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낯선 저자와 낯선 자료를 바탕으로 문학사를 재구성하는 작업과는 달리, 기존의 문학사 안에서 문학사가 전제해오던 방법론에 도전하며, 정전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해 대상으로 삼은 소설은 1930년대 전반기에 창작된 프롤레타리아 문학<sup>5)</sup>이다. 한국문학사는 여전히 1920년대

3) 물론 소영현은 ‘여성문학’ 연구의 무의미함을 선언하지는 않는다. 젠더/섹슈얼리티 연구에서 ‘여성문학’의 연구가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 나아가 여성문학사 서술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전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소영현, 위의 글)

4) 장성규, 『한국 문학 “외부” 텍스트의 장르사회학: 서발턴 문학사 서술을 위한 이론적 문제제기』, 『현대문학이론연구』 64, 2016, 245-264면; 장성규, 『식민지 시대 소설과 비문해자들의 문학사』, 『한국현대소설학회』 56, 2014, 497-522면.

중반과 1930년대 초반을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융성기로 기억하고 있지만, 문학사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이 시기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며 이 문학들이 가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재발견하고 있다.<sup>6)</sup> 이 연구도 이와 같은 최근 연구의 흐름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 안에 재현된 젠더를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새롭게 독해할 수 있는 중요하고 시사적인 요소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이기영의 『고향』의 인물들이 산업화라는 외적 요인과 가족 내 갈등이라는 내적 요인에 의해 가족관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그 후, 강경애의 『인간문제』의 인물들이 노동현장에서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젠더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두 소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다른 1930년대 전반기 프롤레타리아 소설을 참고하면서, 두 소설이 한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재발견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젠더를 중심으로 두 소설을 독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일

5) 한국문학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 사상과 문학의 접점을 고집하던 1920년대 중후반부터 등장한다. 이 용어는 식민지시기에 '프로문학'이라는 약어로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사용될 만큼 당시의 특정 문학 경향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다. 이 용어는 좁게는 카프 소속의 문인들의 문학부터, 넓게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적 발전단계를 의식한 인식론의 기반 위에서 창작된 문학을 가리킨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는 특성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이 용어는 다양한 시각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정의할 가능성을 열어두므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를 문제 삼으려는 이 논문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6) 대표적인 연구로는 손유경의 연구들이 있다. (『슬픈 사회주의자: 미학적 실천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프로문학의 감성구조』, 소명출판, 2012)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사의 정전을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한국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2.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가족관계와 젠더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남녀가 모두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다고 하더라도 젠더에 따라 그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노동현장의 계급갈등이 여성들의 경우 섹슈얼리티를 매개하여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족관계는 사회의 지배구조와 비민주성을 사적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보여준다. 남성들은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도 그 갈등이 파국으로 나아가거나 가족해체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여성들과 가족의 갈등은 기존의 가족관계에 균열을 내거나 혹은 가족관계를 이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sup>7)</sup> 젠더에 따라 가족과 갈등하는 양상이 다른 원인은 젠더화된 사회구조와도 관계가 있다. 이를 이기영의 『고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기영의 『고향』은 농촌마을 원터를 중심으로 이 동리 주변에 방적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그린다. 식민지시기에 방적공장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비혼 여성들을 주로 고용하였다.<sup>8)</sup> 이 소설에서 원터의 농가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소작료로 인해 만성적인 빈곤상태였으므로 비혼 여성들은 가

7) 1930년대 전반기 프롤레타리아 소설 중 이러한 남성인물상은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덕조, 『저희』, 『제일선』, 1932.8.; 강경애, 『인간문제』, 『동아일보』, 1934.8.1.-12.22.; 박화성, 『북국의 여명』, 『조선중앙일보』, 1935.4.1.-12.4.

8)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2011, 25-29면.

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기 위해 공장에 취직하였고, 돈을 벌면서 ‘밥도 먹고 다니는’ 이들을 동경하는 분위기도 형성된다. 여성들은 가족들을 벗어나면서 가족 밖에서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가족 안에서도 경제력을 통해 발언권을 가지는 등 그 지위가 재조정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노동자인 인순과 방개, 그리고 갑숙은 부모와 절연하고 부부관계로부터 이탈하는 등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 가족관계를 재편해나간다. 그녀들의 가족관계는 농민 계몽을 위해 청년회 활동을 하는 희준과 대조된다. 희준은 일본 유학 시절에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였고, 농민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저항하면서 계급의식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사상적 지향을 가진다. 하지만 정작 희준의 가족은 조훈과 시가 봉양과 같은 억압적인 관습을 따르고, 그 스스로도 이 관습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세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재편하는 과정의 특징을 희준과 대조하면서 살펴보겠다.

### 1) 비혼 여성의 가족이탈과 근대적 생산관계 변화의 체감

인순은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공장에서 일하면서 농촌의 관습과 절연하고 근대적 생산관계를 비판적으로 체득하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인순은 자신의 의사가 아닌 가족의 요구 및 가족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공장에 입사하였다. 그녀의 임금은 가족경제의 일부이지만, 공장에서의 노동은 그녀에게 농촌의 전형적인 여성들과는 다른 새로운 성격을 부여한다.<sup>9)</sup> 이러한 인순의 변화는 인순의 모친인 박성

9) 인순의 변화는 그녀가 가족이 아닌 동료 노동자들, 그리고 공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루이스 A. 텔리와 조앤 W. 스콧은 농촌 가정 자녀들이 노동으로 위해 도시로 이주한 후, 도시의 문화를 누리고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가족들과는 다른 생활양식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노동자들 간의 친밀한 관계는 때로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형성하는 기

녀의 시각을 통해 드러난다.

(전략) 이 동리에는 들어앉은 계집아이도 없지마는 마름집 딸 갑숙이는 제멋대로 쏘다니며 노는데도 얼굴이 노랗지 않은가? 그런데 인순이는 뼈마디가 굽어지고 살이 억센 데다가 말소리까지 힘이 있어서 사내같이 튼튼한 기상이 보인다.

어린 것이 부모를 떠났다가 오래간만에 집이라고 찾아왔으니 저간 고생스러운 하소연과 집을 그리는 애달픔이 있으련만 그는 조금도 그런 눈치를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집안 사람들을 위로한다. 상글상글 웃는 표정이 천하만사를 낙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쓸데없는 비관을 단념한 까닭인지 또는 저의 앞길을 환하게 내다보는 굳은 신념이 있어 그럼인지 입은 꼭 맺히고 눈은 매섭게 날카로웠다.<sup>10)</sup>

공장에 들어간 인순이의 변화는 박성녀의 시각을 통해 신체적인 측면과 성격적인 측면으로 나타난다. 우선, 인순이의 신체는 건강하고 강인한 것으로 제시된다. 인순이가 공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정을 반복하는 업무이므로, 인용문처럼 근육과 뼈를 발달시키지 않는다. 인순이의 몸의 변화는 공장에서 그녀가 담당할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녀의 신체와 정신에 나타난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장은 노동자의 신체를 농촌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규율하므로, 노동자의 신체는 농민들의 것과 다르다. 그로 인한 결과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신체의 변화는 정신적인 측면의 변화와도 관련을 가진다.

인순이는 보통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에서 공장에 입사했으므로, 나이도 10대 중반에 지나지 않았고 공장 노동경험도 전무했다. 박

반이 되기도 했다. (루이스 A. 킬리·조앤 W. 스크트, 김영·박기남·장경선 옮김, 『여성, 노동, 가족』, 후마니타스, 2008, 267-270면)

10) 이기영, 이상경 편집, 『고향』, 문학과지성사, 2005, 371-372면.



성녀는 인순이의 첫 취직 경험과 첫 독립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박성녀의 우려와는 달리, 인순이는 자신의 노동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한다. 이러한 인순이의 태도는 그녀가 노동착취와 빈곤의 문제를 공장과 농촌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순이는 한 번도 마르크스주의나 사회비판적인 사상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공장 노동을 하면서 노동자의 노동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나갔다. 나아가 이 시각은 인순이가 농촌과 도시는 다른 생산양식에 의해 생산관계가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지배세력에게 착취당하고 그 결과 빈곤에 시달리는 ‘노동자’로서의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은 생산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 변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는 인물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박성녀는 농민들의 노동력을 재생산 하는 방식으로 농촌의 농산물 생산과정에 참여한다.<sup>11)</sup> 재생산 노동자들은 농업 노동자이지만 농업 노동을 전담하지는 않는 경계인의 시각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과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재생산 노동자는 그들이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의 육체적·성격적 변화에 민감하다. 한편, 인순이는 ‘여성’이라는 그녀의 젠더로 인해 그녀의 남자 형제들보다 더 먼저 근대적 생산 공정과 생산관계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었다. 전체 공장노동자들의 성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위였으나, 농촌에서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

11) 일군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현장에서 직접 노동하지 않고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 예를 들면 가사노동과 양육노동, 그리고 성노동 등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명명했다. 나아가 재생산 노동이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재생산 노동의 ‘생산성’을 논했다. (레오뵈디나 포르투나피, 윤수중 옮김, 『재생산의 비밀』, 박종철출판사, 1997)

주하여 일하는 가족 구성원은 대부분 '비혼인 딸'이었기 때문에<sup>12)</sup> 이들은 농촌 공동체에서 사회와 노동환경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였다. 이 시기에 농촌가정의 여성들은 남성 가족 구성원들과 달리, 농업이 아닌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고 가업 계승의 의무로부터도 자유로운, 중요도가 낮은 성원이었다. 여성들은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성의 사회구조로부터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도록 만들었다.

## 2) 중산층적 가족관계의 지양과 노동자 계급화

『고향』에서 갑숙은 원터의 토지를 지주 대신 관리하는 마름 안승학의 자녀로, 원터에서 가장 유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녀의 가족이 “새 시대에 발맞춰 나가지 못”<sup>13)</sup>한다는 판단 아래 가족과 절연한다. 갑숙의 ‘개화’와 안승학의 ‘개화’는 서로 다른 시대성과 계급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안승학은 원터의 빈곤한 이주민에 지나지 않았지만, 원터에서 그 누구보다 근대 문물에 빨리 적응하여 마름의 지위까지 올랐다. 안승학의 가족이 누리는 유여한 생활의 기저에는 그의 선진적인 감각이 놓여있다. 그러나 갑숙은 그의 가족이 ‘전제’와 ‘묵은 습관’에 젖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12) 식민지시기 농촌에서는 빈곤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이 농촌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노동하면서 가족경제에 기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 가족의 가족 구성원 중 딸은 장남 다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구성원이었다. (문소정, 『식민지적 빈곤화와 가족·여성의 생활 변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엮음, 『경계의 여성들: 한국 근대 여성사』, 한울, 2013, 24-26면) 여성들의 이주는 가족 안에서 여성 구성원의 위상을 변하게 만드는 요인이자, 가족의 가부장권이 여성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적인 조건이었을 것이다.

13) 이기영, 앞의 책, 436면

고 비난한다. 안승학의 ‘근대화’는 전근대의 사고방식을 지양하여 근대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부를 선취하기 위한 것일 뿐 기존의 지배 관계를 지양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과 절연하겠다는 갑숙이의 결정은 부의 증식만을 목적으로 한 근대화에 반대하고, ‘진정한 자유’와 ‘새 시대’를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갑숙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승학이 추구한 근대의 한계를 넘어서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관계를 개척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갑숙이는 단순히 근대에 머무르지 않고 근대를 넘어서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자 한다.

갑숙이는 ‘자유’와 ‘새 시대’를 공장의 노동과 노동자에게서 발견하는 한편, 그녀의 존재를 노동자로 전이한다. 또한 자신이 다른 노동자들과는 달리 마름의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노동자로부터 “불과 같은 맹렬한 열정과 동무를 사랑하는 믿음, 불의를 미워하는 정의감”<sup>14)</sup>과 같은 성품을 배우고자 한다. 이러한 갑숙이의 태도에서 그녀의 ‘개화’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타인과의 공생을 지향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계기로서 동료와 사회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안승학은 자신의 문제만을 그 계기로 포함한다.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겪는 소외는 그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갑숙은 생산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을 직접 체험하고 여기서 “앞날의 포부”<sup>15)</sup>를 찾는다. 표면적으로 이 소외는 노동자들을 좌절시키고 비판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갑숙은 노동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러한 소외를 체험하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과 쉽게 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역설적으로 이 소외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sup>16)</sup> 노동

14) 이기영, 앞의 책, 534면.

15) 이기영, 앞의 책, 535면.

16) 이것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그들의 저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설명한 소외론과 일치한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최인호 역, 『독일

자들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들과 협력해야만 하는 존재조건에 놓여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동료와 사회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노동자들의 존재조건은 갑숙이가 노동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갑숙이는 자신이 노동하면서 직접 실감한 사회과학의 이론을 다른 노동자들과 ‘나눈다’. 노동자로서 갑숙이의 경험은 다른 동료들도 공유하는 것이다. 다만 갑숙은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 경험을 언어화할 능력을 가졌을 뿐이다. 그리고 갑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물질적 배경은 그의 아버지가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 결과였다.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은 갑숙이의 지적수준이 그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갑숙도 이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녀의 지적 능력을 그들을 지도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유한다. 여기에서 중산층 지식인이 노동자들과 동화되어가는 방식이 나타난다. 과거의 갑숙은 중산층의 가족관계에 속해있었다면, 공장에 입사한 이후의 갑숙은 노동자들에 의해 변혁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생산관계에 속해있다. 갑숙이 속한 관계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로 이어진다.<sup>17)</sup>

가족관계가 한 개인의 변혁적 지향과 대립하는 상황은 갑숙뿐만 아니라 희준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족관계에 대응하는 방식은 대조적이다. 희준은 부모의 강요로 조혼하였고, 사랑하

이데올로기, 최인호 외 역, 김세균 감수,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권, 박종철출판사, 1991, 210-217면)

- 17) 『고향』은 갑숙이 공장에 들어간 후부터 그녀가 입사를 위해 사용한 가명인 ‘옥희’로 갑숙을 지칭한다. 이것은 공장 입사를 전후하여 달라진 갑숙의 존재조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소설적 장치이다. 공장 입사 후 갑숙의 변화는 경호의 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경호는 공장에서 갑숙을 보고 갑숙의 외모와 성격이 “그전처럼 온화한 맛이 없고 어디인지 억세고 맷히고 날카롭고 굳센 틀이 잡혀진 것 같다”(이기영, 앞의 책, 649-650면)고 슬회하고 그 원인을 “힘찬 노동과 규율적 생활과 육체적 고통에서 몸과 마음이 강철처럼 단련되어가기 때문”(이기영, 앞의 책, 650면)으로 파악한다.

지 않는 부인과 살면서 지속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만, 자신의 지향과 맞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와 그의 가족이 따르는 질서가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가족관계에 대한 희준의 무비판적인 태도는 그가 인동이의 음전이의 중매결혼을 주선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인동이는 소작농이고 음전이는 유복한 소자영업자의 딸로, 계급적 기반이 서로 달랐지만, 희준은 두 사람의 계급차이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무시한다. 결과적으로 인동이는 계급이 다르고 애정이 부재한 결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 결혼을 중매한 희준을 원망한다. 그러나 희준은 아름다운 외모와 성격이 온순한 음전이와 결혼한 인동이를 부러워하며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노동자들을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인정하고, 갑숙이와 동지적 사랑을 하려는 그의 정치적 입장과 모순된다. 이 모순은 희준이 노동자들과 자신을 구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희준은 같은 이념적 지향을 가진 지식인들은 정신적인 사랑을 통해 동지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수준에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노동자들의 계급 연대는 사랑이 아닌 생산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지식인을 분리하는 희준의 편협한 시각은 그 스스로 계급차별의 주체가 되고 봉건적 가족관계를 재생산하는 모순을 빚게 되는 원인이 된다.

### 3) 아내 역할의 거부와 공장 노동자 되기

인동이의 애인인 방개는 희준의 경우보다 더 선진적으로 사랑 없는 결혼에 대응한다. 방개는 인동이가 음전이와 결혼한 후에 그녀를 예전부터 사모해온 막동이와 결혼하지만, 이 결혼에 만족하지 못한다. 방개는 불만을 참고 결혼생활에 헌신하는 대신, 공장에 취직하

여 아내가 아닌 노동자로서 살아가고자 한다. 공장 생활은 방개에게 억압적인 결혼생활을 대체하는 자유로운 생활로 나타난다.

“나도 너처럼 시집가지 말고 공장에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

“시집이라고 가보니 그전 생각 같지 않아서, 아주 한 말로 말하면 원뿔을 잔뜩 결박진 것 같아서 도무지 못살겠다. 내 자유대로 혼자 사는 것이 제일 좋겠어…….”<sup>18)</sup>

방개에게 공장은 시집보다 더 자유롭고 개인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단순 노동의 반복인 공업 노동은 방개가 꿈꾸는 자유와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시집생활과 공장생활을 비교해볼 때 공장생활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한다. 공장은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만, 시집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노동과 휴식이 분리되어있지 않다. 기혼 여성에게 공장은 ‘머느리’라는 가족 안에서의 정체성을 벗어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혼 여성들의 노동은 주로 가족의 경제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sup>19)</sup> 그러나 방개는 임금노동을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삶의 기회로서 전유한다. 방개의 비전형성은 공장이 여성들의 일탈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개는 공장에 취직한 이후부터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

18) 이기영, 앞의 책, 571면.

19) 루이스 A. 킬리·조앤 W. 스콧, 앞의 책, 276-291면; 문소정은 식민지 조선에서 빈곤 가정의 기혼 여성을 가족의 재생산 노동은 물론, 가족 경제를 위한 임노동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한 가족 구성원이 맡았던 노동을 대리 수행하였다고 분석했다. 즉, 가족 구성원 중에서 기혼 여성이 가장 주변적인 지위에 있었으며 결혼 노동력을 항시적으로 대체하면서 과중 노동에 시달린 구성원이었다고 본 것이다. (문소정, 앞의 글, 33-36면)

작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파업이다. 방개는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자신이 일하는 방직공장에서 조직된 파업의 계기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동운동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후 방개는 윈터의 농민들이 안승학에 맞서 소작료 인하 투쟁을 벌일 때, 자신의 결혼반지를 팔아 투쟁자금을 제공한다. 결혼반지가 소작쟁의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설정은 계급투쟁이 애정 없는 형식적인 결혼을 능가하는 고귀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 노동자들은 억압적이고 그녀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가족관계와 결혼관계를 떠나 다른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족관계를 벗어난 생산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희준은 이 여성들과는 달리 불편한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기성의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를 옹호하기도 한다. 희준의 사례를 가족 내 젠더 역할과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따른다면, 여성들에게 가정은 그녀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공간이다.<sup>20)</sup> 반면, 남성들은 가정을 자신들의 존재를 실현하는 곳이 아닌 가부장권으로 자신의 지배를 확인하는 공간이므로,<sup>21)</sup> 억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들은 가족과 자신의 욕망이 충돌할 경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에 전면적으로 맞서야 한다.<sup>22)</sup> 젠더에 따라 가족과 가정이 가지는 중요성의 차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지식인보다 가족문제에 관해

20) 캐롤 페이트만, 이충훈·유영근 옮김,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2001, 201면.

21) 캐롤 페이트만, 위의 책, 161-167면.

22)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저서 『붉은사랑』은 러시아 혁명기를 배경으로 혁명기에 사회적 진출을 하려는 여성들의 욕망과 여성들에게 가정 안의 업무를 전담할 것을 요구하는 기성의 관습의 충돌을 그려내었다. 이 소설은 혁명기의 러시아에서조차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사적 영역의 존재로 취급하는 관습이 여성들의 행동반경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알렉산드라 콜론타이, 김제현 옮김, 『붉은 사랑』, 공동체, 1988)

더 진보적으로 대응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3.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노동현장과 젠더

1930년대 전반기에 등장한 많은 프롤레타리아 소설들이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갈등과 계급투쟁을 그리면서 공통적으로 이것에 연루된 사건으로서 노동현장의 성폭력을 그려넣은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sup>23)</sup> 이는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들의 투쟁이 관리자 혹은 사용자들의 성폭력에 대항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sup>24)</sup> 강경애의 『인간문제』에서도 여성 노동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자신과 동질적 계급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안목을 갖추게 된다.

#### 1) 성폭력 피해와 계급의식의 자각

선비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지주 덕호의 집에서 무급 가사사용인

23) 1930년대 전반기 프롤레타리아 소설 중 성폭력이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갈등과 계급투쟁의 원인으로 그려지는 소설은 다음과 같다. 유진오, 『여직공』, 『조선일보』, 1931.1.2.-22.; 송계월, 『특집문예: 직업여성 주제의 문예단편집- 여직공 편: 공장소식』, 『신여성』, 1931.12.; 최정희, 『특집문예: 직업여성 주제의 문예단편집- 여점원 편: 尼奈의 세토막 紀錄』, 『신여성』, 1931.12.; 이복명, 『여공』, 『신계단』, 1933.3.; 강경애, 『소금』, 『신가정』, 1934.5.-10. 등.

24)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에 제출한 요구안에는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례는 드물지만,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1992, 307-327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시 가해자인 관리자 등이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 노동자에게 그 해악이 끼칠 것을 우려하여 '노동환경 개선' 등과 같이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쏠릴 것을 우려하여 감춰야만 했던 맥락은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송계월, 위의 글; 이복명, 위의 글; 강경애, 위의 글)



으로 일하며 생활한다. 덕호는 선비가 사고무친(四顧無親)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선비를 강간한다. 강간은 높은 계급에 의해 낮은 계급에게 행해지는 다른 폭력들과 동일시되기도 했지만, “그 상처가 희생자에게는 접촉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생각과 수치심을 각인시키고 훼손당한 인격을 관통하는 모욕감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놓는데 비해, 폭행한 자에게는 대개 거의 인식되지 않거나 욕망을 해소하는 그 순간 지워버린다는 점에서 다르다.”<sup>25)</sup> 강간 가해자인 덕호는 그의 강간을 ‘성관계’ 혹은 ‘성매매’로 포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비는 강간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옥점 어머니로부터 핍박받거나, 덕호를 유혹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덕호는 가사사용인과 고용주의 서로 다른 지위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이다. 이것을 샤론 마커스의 말을 빌려 ‘강간 각본’<sup>26)</sup>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덕호의 집을 떠나 갈 곳이 없는 선비는 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 덕호의 의도대로 그의 첩이 되고, 점차 덕호의 강간 각본에 포섭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선비는 덕호의 각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점차 자각해간다. 이것은 선비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진다. 과거에 선비는 덕호의 첩이었던 간난이를 경멸했었지만, 강간 피해 이후 간난이가 첩이 되었던 경위를 이해한다. 또한 첫째에 대한 입장도 바뀐다. 첫째는 원소 마을에서 성노동자의 자녀이자 부친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낙인에 시달려야 했다. 선비도 예전에는 다른 사

25) 조르주 비가렐로, 이상해 옮김, 『강간의 역사』, 당대, 2001, 41면.

26) 이 단어는 샤론 마커스(Sharon Marcus)가 논문 “Fighting Bodies, Fighting Words: A Theory and Politics of Rape Prevention”(Judith Butler & Joan W. Scott ed.,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Routledge, 1992, pp.385-403)에서 강간의 성립조건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강간의 과정에 대한 통념을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강간 각본(rape script)’에서 빌려왔다.

람들처럼 첫째를 멀리했지만, 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 자신이 첫째 모친의 처지와 유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비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지배관계를 인식하고, 자신과 계급적 동질성을 지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안목을 갖춘다. 나아가 선비는 강간 피해자로만 살지 않기 위해 서울로 떠난 간난이의 거주지를 알아내는 등 원소를 떠날 계획을 세운다. 선비가 그녀의 이웃들을 동질적 계급으로 인식하는 과정은 덕호의 첩이라는 수동적인 지위 대신 자율적인 삶을 찾아나가는 원동력이다. 선비가 덕호의 집을 떠나는 장면은 자율적 개인이 되려는 선비의 태도를 드러낸다.

저편 동쪽하늘에는 번갯불이 번쩍 일어서 한참이나 산과 산을 말강게 비추어주었다. 그때마다 우르르... 타는 소리가 들린다. 선비는 전 같으면 이런 것들이 무서우련만 이 순간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당하리라고 최후의 결심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중략)

그때의 일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를 싸고 도는 것이다. 덕호가 주는 돈은 이불 속에 넣고 첫째가 캐 온 소태나무뿌리는 윗방 구석에 내어던지고……

“검둥아! 너 나하고 같이 가련?”

번갯불이 환하게 일어났다 꺼진다.<sup>27)</sup>

선비는 덕호의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이유는 더 이상 덕호 같은 지배계급은 그녀의 동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선비의 의식변화는 덕호와 첫째의 대조를 통해 드러난다. 소태나무 뿌리 사건이 보여주듯이, 과거의 선비는 첫째를 멀리하고 덕호를 가까이하면서 지배계급을 동경했었다. 이 사건은 선비가 덕호의 집을 나서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선비의 변화를 제시한다. 소태나무 뿌리를 내던지던 과거

27) 강경애, 최원식 편집, 『인간문제』, 문학과학사, 2006, 254-256면.

의 선비와 달리, 현재의 선비는 지배계급으로부터 멀어지고 피지배 계급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인용문의 검둥이도 덕호와 상극을 이룬다. 검둥이는 덕호의 집에서 거주하지만 실상 덕호의 가족들에게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검둥이의 처지는 덕호의 집에 거주하는 선비의 처지와 유사하다. 선비가 검둥이를 ‘동지’로 재발견하는 장면은 선비와 같은 피지배계급의 동지는 곳곳에 산재해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만약 선비가 과거처럼 덕호와 같은 지배계급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면, 그녀를 지도해줄 ‘지배계급’이 없는 길을 가야만하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피지배계급과 연대할 준비가 된 선비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2) 성폭력과 계급갈등

선비가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과정은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에서 시작하여 노동현장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까지 동질적 계급으로 인식해나간다는 특징을 가진다. 선비는 인천의 대동방적공장에 입사하던 당시, 원소의 마을 사람들 중에서 그녀와 계급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깨달았지만, 추상적인 수준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 지식인이 아닌 선비는 계급의식에서부터 지배와 착취구조를 모두 경험에 기초하여 파악했기 때문에, 아직 그녀가 경험하지 않은 자본주의적 지배관계에는 무지했었다. 선비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거울삼아 대동방적공장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고용관계와 계급갈등 구조를 인지해나간다. 가장 먼저 선비는 공장의 감독들이 그녀를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을 느끼면서 공장의 계급갈등을 인식해나간다.

의자를 가리켰다. 선비는 당황하였다. 그리고 그의 신변에 위기가 박두한 것을 느끼며 어떡해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았다. 그리고 숨이 가빠오며 방 안의 공기가 자기 하나를 둘러싸고 육박하는 듯하였다. 그 때 선비는 덕호에게 유린받던 경험을 비루어 감독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 선 듯 떠오른다.

“저 난 일하던 것을 놓고 들어, 들어……왔세요.” (중략)

선비는 어서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나 감독은 이런 부실한 말만 자꾸 늘어놓는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를 세워놓고 저런 말이나 언제까지나 되풀이할 모양이다. 선비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저는 나가서 일 마자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저……”

돌아서서 나오는 선비에게 이러한 말이 치근치근하게 뒤따른다. 선비는 못 들은 체하고 밖으로 나왔다.<sup>28)</sup>

선비는 대동방적공장에 입사한 이후, 뛰어난 외모로 인해 여러 감독들의 관심을 받는다. 인용문의 상황도 관리자가 선비와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선비는 감독을 처음 대면했을 때에는 매우 위축되고, 덕호에게 강간당하던 장면을 떠올리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리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감독의 발화 중간에 선비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업무의 시급함을 언급하지만, 방을 빠져나올 즈음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 인용문의 초반부와 후반부에 나타나는 선비의 변화는 그녀의 성장을 반영한다. 관리자는 선비를 부를 때 하급 노동자이자 묵묵히 일만 하는 선비가 관리자인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이고, 쉽게 강간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비는 감독과 대화할수록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감독의 강간 각본을 배반한다. 이 과정에서 선비는 성폭력의 위협이 덕호의 집뿐만 아니라 공장에도 존재

28) 강경애, 위의 책, 344-345면.

하고,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자각한다.

선비는 관리자의 강간 각본을 거부한 후부터 관리자의 의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거부는 강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력자가 되라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간난이가 노동운동 조직의 지령으로 인해 공장 기숙사를 탈출한 다음에, 감독은 선비에게 간난이의 행적을 추궁하지만, 선비는 미소를 보이며 거짓말을 한다. 선비는 동료 노동자들이 그녀에 대해 관리자에게 협력하면서 특혜를 누린다고 험담해도, 미소로 응답하면서 노동운동 조력자라는 자신의 신상을 감춘다. 선비는 감독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동료 노동자들과 거리를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에 참여한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투쟁을 조직하는 전형적인 노동운동가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

선비의 비전형성은 그녀가 계급의식을 일깨울 첫 번째 대상으로 첫째를 떠올릴 때에도 나타난다. 선비가 노동과정에서 계급의식을 키워나갔다면, 그녀는 누구보다도 같은 공장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연대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선비는 우선적으로 고향 친구인 첫째를 계급의식을 복돋워주고 싶은 대상으로 떠올린다. 이는 한편으로는 매우 어색해보이지만, 선비가 공장에서 계급의식을 키워온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할만 하다. 공장에서 선비의 계급의식은 원소에서의 성폭력 경험을 기초로 관리자들의 성적 접촉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선비는 공장에서 나타나는 계급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원소 마을 사람들의 관계를 공장의 계급관계에 유비하여 이해한다. 이 소설은 선비의 계급의식 성장과 자본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를 원소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sup>29)</sup> 그리고

이것은 원소라는 마을 공동체가 선비에게 계급갈등과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공간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 3)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계급관계

선비는 고용관계로 구성된 공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비와 첫째는 유사한 시기에 계급의식을 각성하지만, 두 사람이 노동자라는 계급적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첫째는 신철의 강의를 통해 계급관계를 학습했고, 선비는 생산관계와 공장 내 권력관계에 원소 마을에서의 경험을 유비하면서 계급관계를 자각했다. 첫째는 자신에게 계급의식을 알려준 신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노동운동에서 신철의 권위를 대단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철이 같은 중요 인물이 붙들리게 되면 바야흐로 계급의식에 눈떠오려던 인천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앞길은 암흑천지로 변할 것 같았다”<sup>30)</sup>는 진술은 첫째의 그 같은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선비에게는 신철과 같은 정신적 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비 역시 간난이에게 많이 의지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첫째처럼 신격화나 절대적인 지지는 아니었다. 선비는 사회구조와 계급구조를 스스로 자각해나가면서 자신을 억압하는 계급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얻는다. 선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적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절대적인 지도자로 상정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지도자의 지위에 놓는 자신

29) E.P. 톰슨은 계급의식이 성장하는 장소로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를 언급했다. 계급의식은 같은 생산관계를 체험하는 사람들 사이의 동질성에서 발전하기도 하지만, 일상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생활 수준이 비슷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짝들 수 있다. (E.P. 톰슨, 나종일 외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상·하, 창작과비평, 2000)

30) 강경애, 앞의 책, 331면.

감을 보일 수 있었다.

선비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면서 계급의식을 키워왔지만, 마을 사람들의 내부라는 좁은 범위에만 계급의 위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미 선비는 마을을 넘어 공업도시 인천에서 수 천 명의 노동자들과 공업단지에서 노동하면서, 자신이 구체적인 관계에서 발견한 계급관계를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까지 적용해 나간다.

흙짐을 저서 괄해진 첫째의 등허리! 실을 쪼기에 부르튼 자기의 손끝! 그리고 수많은 그 등허리와 그 손들이 모여서 덕호와 같은 수많은 인간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하였다. 보라도 선비의 앞에 나타나는 길은 오직 그 길 뿐이다.<sup>31)</sup>

선비는 일용직 노동자인 첫째와 방적공장 노동자인 자신을 서로 같은 계급으로 느끼면서,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그들처럼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같은 계급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도 선비처럼 개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덕호와 같은 지배계급과 필연적으로 갈등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선비의 앞에 나타나는 길은 오직 그 길 뿐이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선비의 계급과 계급투쟁 인식은 일정한 사회법칙을 세우려는 의도보다 선비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회 구조를 인식하고, 이런 구조 안에서 피해와 억압을 받는 일을 중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선비에 대한 신철의 짝사랑은 노동자와 지식인의 거리를 나타낸다. 신철은 옥점의 초대로 덕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선비에게 지속적인 호감을 보이지만 선비와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다. 신철은 끊

31) 강경애, 앞의 책, 336면.

임없이 선비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선비는 신철과 멀어지려고 노력한다.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는 신철은 노동자에게 친밀한 감정을 느끼지만, 가사사용인인 선비는 지식인이자 옥점의 손님인 신철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신철과 선비는 원소, 서울, 인천에서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조우하지 못하고 계속 어긋난다. 이 소설은 지척에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계급격차를 뛰어넘는 친밀한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문제』는 고향인 원소에서 공장지대인 인천으로 이주한 여성 노동자가 노동현장을 불문하고 반복되는 성폭력 위협 속에서 자신의 계급을 자각하고 계급투쟁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 소설에서 선비의 이주는 같은 고향에서 같은 공장지대로 이주한 첫째와 비교해보았을 때 계획적이며, 성장을 위한 도약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선비는 노동현장에서 경험한 성폭력으로 인해 계급의식을 자각했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필요성을 몸으로 실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선비의 계급투쟁은 신철과 달리 그녀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변절’이 불가능하다. 그녀가 노동자로,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급투쟁은 필수적이며, 끊임없이 이어져야하기 때문이다.

#### 4. 한국문학사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

『고향』과 『인간문제』는 여성 노동자와 남성 지식인의 비교를 통해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보수적인 가치에 비판적이고 변혁적인 지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 두 소설을 분석해보면, 남성 혹은 중성의 시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가족관계와 이성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이 인간의 해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계급문제로 보이지 않는 가족문제를 계급문제로 제시하였다. 가족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급 차이와 가족에 종속되는 여성의 지위를 고려해보면 계급문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성폭력이 계급갈등의 일환이라는 점을 보였다. 성폭력은 젠더 권력뿐만 아니라 계급 권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젠더와 계급 권력이 두 가지가 겹쳐진 것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생산관계에서 겪는 소외와 노동착취보다, 성착취가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계기이자 주요 계급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두 소설은 모두 여성 노동자를 활용하여 당대의 모순과,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소설에서 재현된 젠더를 중심으로 두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재발견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문학사에서 『고향』은 김희준을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다. 김희준은 교환가치의 세계에서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문제적 인물’이다. 『고향』은 그를 매개로 농촌의 사회구조와 농민들의 계급의식이 실체화되는 양상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김희준은 끊임없이 자기비판하며 발전하고, 농민들 역시 그의 소부르주아적 성격을 비판하며 그의 성장을 돕는다.<sup>32)</sup>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문학사는 『고향』을 “전형적 상황에서의 전형적 인물들의 집단적 창조에 성공함으로써 당대 농촌 현실의 총체성을 담지해내는 일반 농민 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확립”<sup>33)</sup>한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기억해왔다. 이러한 결론은 ‘김희준’을 문제적 인물로 놓고, 그를 중심으로 서사를 독해하였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었다. 김희준이 아닌

32) 이상의 해석은 정호웅, 『이기영론: 리얼리즘 정신과 농민문학의 새로운 형식』,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 근대 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8, 82-94면.

33) 정호웅, 위의 글, 94면.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독해한다면, 이 소설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다른 측면에서 발견하고, 이 소설의 문학적 위상 역시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소설은 여성 노동자인 인순을 통해 농촌과 도시의 노동자가 발생한 기원이 같을 뿐 아니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측면에서 연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농촌 사람들과 다른 인순의 육체는 당시 사회에서 우세한 산업이 농업에서 점차 공업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상징한다. 여성인 인순이 사회변화를 표상하는 육체로 등장한 것은 여성 젠더가 남성 젠더보다 사회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에 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근대 교육을 받은 갑숙은 물질문명 위주의 근대화를 추종하는 아버지 세대를 지양하고,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지배관계를 전복시키고자 했다. 딸이 아버지 세대를 전복하는 서사는 아들이 아버지를 전복하는 가부장권의 교체 서사와는 달리 가부장권의 존재 조건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족질서의 등장을 암시한다. 셋째, 『아내』에서 공장 노동자로 존재를 전이하는 갑숙은 근대 산업화로 인하여 기혼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노동할 기회를 얻으면서, 가족관계를 벗어나 '노동자'로 자신을 정체화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여성들에게 가족관계는 그녀의 정체성을 전적으로 제약하는 범주가 아니게 된 것이다. 여성 노동자를 통해 본 『고향』은 산업구조 변화와 근대화의 방향 전환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다는 것을 재현한 작품이다. 즉, 문학사에서 이 소설은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가족제도의 변화를 그린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인간문제』 역시 문학사 안에서 소설에 나타난 젠더보다 노동자와 지배계급, 그리고 소부르주아적 지식인의 전형성을 잘 살렸고, 원소 마을의 전설은 권선징악이 설득력을 잃고 빈부대립이 치열해

진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을 잘 드러내며, 소설의 무대인 인천 역시 산업화의 발전정도를 극적으로 드러내기에 적절한 장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sup>34)</sup> 즉, 이 소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간, 인물의 성격,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계급대립, 각 계급에 따른 성격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1930년대를 대표할만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서 가지는 의의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문학사는 이 소설이 노동현장의 젠더를 드러내었다는 측면에 주목하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젠더가 드러났고 이것이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에 미친 영향은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선비가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주요한 사건과 계급갈등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에 주목해보면 이 소설에 나타나는 젠더의 양상과 그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소설은 성폭력을 여성 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제시하였다. 선비는 덕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면서 지배관계를 체감하고, 덕호와 자신의 계급차이를 실감한다. 둘째, 젠더에 따라 계급투쟁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성 노동자에게 계급투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찾으려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투쟁은 단순히 현재의 자본주의적 사회구조만을 원인으로 삼지 않으므로,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넘어서서 일상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착취와 계급격차를 문제 삼는 것으로 나아간다. 셋째, 선비는 계급갈등을 노동과정뿐만 아니라 노동과정 바깥에서도 성폭력의 형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드러나는 계급격차와 계급갈등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선비가 첫째와는 달리 추상적 수준에서 계급과 계급갈등을 인식하지 않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인식한 것은 바로 두 사람의 젠더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선비가 신철과 친밀해지지 못하고 계속 어긋났

34) 이상의 『인간문제』에 대한 해석은 이상경, 『강경애: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104-124면.

던 것 역시 선비가 일상의 수준에서 존재하는 계급격차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고향』과 『인간문제』를 젠더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두 소설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겪는 주요한 모순은 자본주의적 고용관계 및 생산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및 결혼제도와 성폭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프롤레타리아 문학에서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모순은 생산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만이 아니라 그 외부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문학사적 지위를 조정해보려는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주로 생산관계에서 나타나는 계급갈등이 당시의 역사적 맥락과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얼마나 합치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한 방법이 어느 정도의 미학적 수준에 도달하였느냐에 따라 그 우수성을 평가받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겪은 모순은 생산관계의 모순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이 두 소설은 노동자들 사이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모순이 증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젠더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문학사에서 가지는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론이 될 만하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강경애, 최원식 편집, 『안간문제』, 문학과지성사, 2006.

이기영, 이상경 편집, 『고향』, 문학과지성사, 2005,

### 2. 논문

소영현, 「문학사의 젠더」, 『민족문학사연구』 56, 2014, 77-105면.

장성규, 「한국 문학 “외부” 텍스트의 장르사회학: 서발턴 문학사 서술을 위한 시론적 문제제기」, 『현대문학이론연구』 64, 2016, 245-264면.

장성규, 「식민지 시대 소설과 비문해자들의 문학사」, 『한국현대소설학회』 56, 2014, 497-522면.

### 3. 단행본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2011.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1992.

김윤식·정호응 편, 『한국 근대 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8.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 민족문학사 강좌』 2, 창비, 2009.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엮음, 『경계의 여성들: 한국 근대 여성사』, 한울, 2013.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이상경, 『강경애: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레오뵈디나 포르뚜나띠, 윤수종 옮김, 『재생산의 비밀』, 박종철출판사, 1997.

루이스 A. 킬리·조앤 W. 스콧, 김영·박기남·장경선 옮김, 『여성, 노동, 가족』, 후마니타스, 2008.

E.P. 톰슨, 나종일 외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상·하, 창작과비평, 2000.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9.

조르주 비가렐로, 이상해 옮김, 『강간의 역사』, 당대, 2001.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최인호 역, 김세균 감수,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권, 박종철출판사, 1991.



캐롤 페이트만, 이충훈·유영근 옮김,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2001.

Judith Butler & Joan W. Scott ed.,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Routledge, 1992.

## &lt;Abstract&gt;

## The Gender of Proletarian literature in the early 1930s and Korean Literature History

Bae, Sang-Mi

This paper examines proletarian fiction in the early 1930s, particularly Kohyang and Ingan munjae (From Wonso Pond) in order to recast Korean literary history. For this purpose, I analyze women worker characters who appropriate and resist social norms in these novels. When I reconstruct proletarian novels to focus on gender, two cases are often found: ways of responding to conflicts within the family differ according to gender, and conscious class struggle for many women originates from sexual harrassment. Kohyang represents the former by comparing a male intellectual who submits to the feudal family system without any critical perspective, whereas women laborers find new identities while working in the factory. Ingan munjae portrays the latter by contrasting a male intellectual and worker who understand class and class conflict abstractly, with a female worker who perceives class struggle as a way of recovering her dignity within the spaces of both everyday life and the working place stratified by class. Both novels describe how various contradictions overlap foll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laborers. Therefore, I propose that a gender perspective can be a productive methodology to newly articulate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proletarian novels in Korean literary history.



Key words: Gender, Korean Literature History, Kohyang, Inganmuge,  
Woman Worker, Family, Sexual Harassment

투 고 일 : 2017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7년 11월 15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